



제목	The Crimean War in Imperial Context, 1854-1856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Palgrave Macmillan
발행일	2015. 10. 14.
저자	Andrew C. Rath
출판도시	Basingstoke
페이지수	301
ISBN 또는 ISSN	978-1137544513

내용 요약

『1854~1856년 제국의 맥락에서의 크림 전쟁』은 발트해, 흑해, 태평양의 주요 사건들을 통해 제국의 본질, 특히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에 관해 서술한 책이다. 저자 로트는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여 오스만 제국과 연합하였을 때 러시아가 중립적인 중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맹국들의 봉쇄작전에 발트해의 경제 쇠퇴, 무기 부족, 허약한 해군력으로 고전하던 러시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54년 세바스토폴 전투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북태평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페르토파블롭스키(Petropavlovsk)를 공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크림 전쟁은 중국 입장에서 아편 전쟁으로 영국이 중국을 점령할 것이라는 위기 위식과 러시아의 우려가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크림 전쟁이라는 유럽에 국한된 전쟁을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의 역할까지 고려하여 풀어낸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다만 지도나 사진, 도표가 적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러시아의 전략, 발트해에서의 크림 전쟁 개시, 백해에서의 군사작전, 태평양에서의 크림 전쟁, 일본의 역할, 1855년 스웨보르그 전투 등을 설명하였다.

저자는 크림 전쟁에서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학관계를 해명하는 동시에 크림 전쟁의 근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크림 전쟁과 최초의 현대전이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과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가령 유힘을 사용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에서의 유독 가스 사용과 유사하며, 선전선동술을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